

초등 신규 교사 전문성 높인다

도교육청, 불안서 워크숍... 120여명 참석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초등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초등 신규 교사 및 5년차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사례발표와 토의로 진행되며 신규 교사 외에도 희망 교사 등 120여명이 참여한다.

신규 저경력 교사들이 수업 나눔으로 성장하고, 학생이 배움의 중심에 서는 수업을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수업 성숙도, 교사의 강점을 담다’의 저자인 정민수 수석교사(전주문학교)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교사로서 자신의 수업 강점을 찾는 참여형 워크숍이 이어지며 분원 활동에

서는 멘토 교사들과 함께 ‘선배들의 수업 사례와 학생 이해에 대한 멘토링’, 토의 형식의 ‘수업 고민 나누기’, 그리고 워크숍 소감 발표를 겸한 ‘나의 수업 공약’ 등을 진행한다.

특히 선배 멘토 교사들은 신규 저경력 교사의 고민을 담은 ‘신규교사 김선생님의 하루’라는 상황극으로 흥미로운 동기유발 활동을 준비 중이다. 저경력 교사들에게는 멘토 교사와의 만남,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수업 고민을 나누고 실제

적인 수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강점을 찾아 수업 전문성을 높여도 록 돕는 것”이라며 “워크숍에서 나온 저경력 교사들의 의견은 도교육청의 수업 전문성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체육의 저력 보여주자”

도체육회, 전국체전 대비

종목단체 총감독 간담회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와 종목단체 총감독들이 필승 결의를 다졌다. 전북체육회는 4일 ‘전국체전 대비 종목단체 총감독 간담회’를 익산실내체육관 전북종합상황실에서 열고 막관 훈련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47개 종목의 총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목표인 종합3위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국체전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과 종목별 협조사항, 보조금

집행,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회 출전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와 부상없는 효율적인 훈련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15년만에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총감독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점검해야 한다”며 “전북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개최된다.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이북5도 선수단 등 약 3만명이 출전하며 전북 선수단은 종합 3위를 목표로 47개 종목에 출전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가 4일 ‘전국체전 대비 종목단체 총감독 간담회’를 익산실내체육관 전북종합상황실에서 열고 막관 훈련 점검 등을 논의했다.

40년 전 봉사단원 전북대 다시 찾아 ‘감동’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어린 시절 보냈던 전북대 방문

“40년 전 봉사단 일원으로 찾았던 전북대를 이렇게 다시 찾아 환대까지 받게 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누구나 어려웠던 1970~80년대, 미국 정부는 평화봉사단을 통해 우리나라에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당시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도나 데그라시아(Donna DeGracia)씨도 미국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그렇게 어린시절을 전북대에서 보낸 도나씨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지난 2일 40년 만에 전북대 캠퍼스를 다시 찾은 도나씨는 신축된 중앙도서관과 뉴실크로드센터,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한옥

건물들을 보며 변화된 캠퍼스에 옛 기억을 덧입혔다.

또한 캠퍼스를 비롯한 도시 자체에 심어진 수많은 나무들을 보며, 과거 자신이 봤던 황무지에서 변했다며 큰 감동을 전했다. 홈키밍데이를 통해서도 대학 관계자들을 접견해 그간 전북대가 걸어온 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답소도 나눴다.

특히 모든 것이 서구화된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한국의 멋과 전통을 보여주는 한스타일의 캠퍼스에 찬사를 보냈고, 한옥 캠퍼스가 한국 문화의 지킴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나씨는 “40년 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전북대를 방문했는데, 울창한 나무와 고즈넉한 한국적 정취가 옛 기억과 오버랩 되면서 새로운 인상



지난 2일 어린시절을 전북대에서 보낸 도나씨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며 “전북대가 한국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캠퍼스로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 평화봉사단은 아

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각종 질병 퇴치운동, 여성인권신장운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책내음이 솔솔~ 반갑다 도서관’

도서관 문화축전 내일부터 이틀간... 프로그램 다채

전북교육문화회관 등 공공도서관 18곳 참여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12회 도서관 문화축전’이 오는 6~7일 이틀 동안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올해 도서관 문화축전은 ‘책내음이 솔솔~, 반갑다 도서관’을 주제로 전시마당, 놀이마당, 독서마당, 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시마당에서는 ‘도서관과 사서: 공공해요, 도서관’이라는 테마전시를 통해 도서관 알아보기, 사서가 되는 법, 책놀이 등이 운영된다.

놀이마당에서는 각 기관 수강생들이 준비한 방송댄스·사물놀이·난타 등의 공연과 가족극·인형극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돼

있다.

또한 독서마당에서는 도내 초·중·고등학생 80명이 참여하는 ‘독서골든벨’과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도 마련된다.

‘우진이의 일기’,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 등의 저자인 조수진 작가와 함께 그림책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알아보고, 바른 인성을 키워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사기간 야외부스에서는 도서관 우수프로그램 체험부스와 테마부스가 운영된다. 6일에는 최명희 작가 및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최명희 문학관’이, 7일에는 컬러보드를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보는 ‘색으로 자아 찾기’ 테마부스가 각각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업무담당자 연수

전북교육청은 오늘부터 6일, 12일부터 13일까지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업무담당자 및 관심있는 교사들이 참석해 ‘2018.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생들의 위험행동을 줄이기 위해 지식이나 바람직한 태도형성을 뛰어 넘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생활기술)을 작음해 학생 체험형, 참여형, 주도형 교육을 내용으로 연수할 예정이다.

라이프스킬(생활기술) 프로그램은 모둠별 협업과 브레인스토밍 등 창의성을 강조하여 진행되는 체험형 수업으로 교사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교육 방법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먼저 경험하고, 학생

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참여형 건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등 라이프스킬 역량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강화를 위해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금연 서포터즈 운영, 학교 흡연예방사업지원단 운영 등의 흡연 예방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총장배 태권도대회 내일 개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한영수) 총장배 태권도 대회가 6~7일 양일간 비전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태권도 대회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일반부 별로 개인품새, 겨루기, 태권체조, 페어폼새, 단체품새, 가족품새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며 총 1,093명이 출전

해 기량을 겨룬다.

개막식은 6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전라북도 최초로 창설된 비전대 태권도 시범단이 화려한 발차기와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대회 고등부 입상자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비전대 태권도체육학과 특례입학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은성 기자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의회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